

서체 날개 판매 A사 “계속 유지” S사 “이젠 끝!”

2000년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아시아 폰트(대표 마성수)와 산돌글자은행(대표 석금호)의 날개 서체 판매가 엇갈리는 길을 걷게 됐다. 비슷한 시점에서 날개 서체 판매를 시작한 두 회사 가운데 아시아 폰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날개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산돌글자은행의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부터 날개 서체 판매를 중지한 것이다.

아시아 폰트는 97년부터 출시된 63종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날개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31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시아 폰트 관계자는 “97년에 출시된 서체의 경우 충분한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판단된다. 설사 그것이 영업이익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시한 지 6년이 지난 서체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라며 일부 서체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 폰트가 배포하고 있는 무료서체에는 오래된 서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발표된 서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 무료로 서체를 보급하고 있다. 무리한 패키지 판매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기보다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판매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시아 폰트의 날개 서체 판매와 무료 배포가 초창기 동종업계로부터 견제와 비난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겐 여간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패키지 판매와 날개 판매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격의 거품을 뺀 날



기획사들 “불필요한 서체 꼭 사야하나” 볼멘 소리

개 판매를 선택하고 있다.

패키지 판매만큼의 이익을 남기진 못했지만 날개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아시아폰트는 서울 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등 회사의 인지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폰트의 무료 또는 날개 서체는 아시아소프트 홈페이지(www.asiafont.com)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폰트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필요로 하는 날개 및 무료 폰트를 설치하면 된다.

아시아 폰트 관계자는 “날개나 무료 서체의 경우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라며 “유통질서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무료 및 날개 서체 판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한편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에서도 유료회원에게 한해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출시한 맥용 16종, 윈도우용 15종 서체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한편 산돌글자은행(대표 석금호)은 지난 12월 2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형식으로 판매되던 트루타입용 날개서체 및 윈도우용 패키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산돌글자은행은 지난 11월 27일 발송된 회원 전용 발신메일을 통해 “시장 구조의 변화, 사용자 지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날개서체와 패키지의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밝히고, “날개서체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산돌 측은 패키지 판매의 경우 이른 시간 내에 신제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패키지 상품 재판매는 신 서체가 발표되는 올 상반기쯤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날개 서체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 실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 산돌 서체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다시금 기존의 관행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서체 가격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일괄 구매해야 한다.

충무로 H기획사에 근무하는 이수정씨는 “필름출력 시장에서 서체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디자이너들이다.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출력회사에서 해당서체를 구매하는 것 아니냐. 무료로 나누어줘도 시원찮은 판에 필요 없는 서체까지 일괄 구입하라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씨는 돈을 들여 서체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씨는 “최근에 나온 서체의 경우 출력 회사에 없는 서체가 많다.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서체는 무료로 구한 서체들과 신 서체 출시 이벤트 행사 기간에 구한 서체가 전부”라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강화되는 바람에 출력회사에서 나누어 준 서체를 모두다 지워버리고, 그나마 날개로 3~4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 못하게 됐다”며 날개 서체 판매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윤디자인연구소도 아이클릭아트에서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서체 외에 회사 자체로는 별도로 날개 판매를 실시한 적이 없다.

한편 날개 서체 판매방식은 출력회사들도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다. 디자이너들에게 판매되는 트루타입 서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에 포스트스크립트형 서체를 구입해야 하는 출력회사들로서는 당연한 요구로 보인다.

〈이용우기자〉